

특성화된 콘텐츠로 감동 끌어내야

지방화시대의 불교 현주소는 어디일까. 과거와 비교해 지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불교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무게가 분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수도권이다. 지방화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화행정 등 모든 것이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종교 역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역별 고유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종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지역이다. 지역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

이에 2006년 새해를 맞아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담을 열고 있는 인물과 단체를 조명해본다.

■ 지역별 불교 현주소

경기 문화프로그램 다양

단위지역이 워낙 많고, 또 수도권이다보니 서울과 연계한 움직임도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특징은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문화시설을 갖춘 사람이 적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사회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그 분야도 환경, 인권, 교육 등 고르게 펼쳐져 있다.

신도시가 많은 특성상 도심사람이 많아 포교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 지역경제 약화로 부진

강원불교는 지역경제가 약화되면서 몇 년째 동반침체를 겪고 있다. 관광사람이 많은 특성상 경제 여건에 따라 사찰 활동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신학, 교육, 포교, 사회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불교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분야는 속속 신항사와 원주 성불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월정사를 비롯해 몇몇 사찰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활동은 그런대로 탄력을 받고 있다.

충청 청소년 대상 활동 왕성

충청도는 이제 막 '불교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태. 모든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 분야도 만족할만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과 포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신학도 수동적이고 미약하다. 다만 문화와 사회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공주 등 상당수 지역이 지역축제와 불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도 왕성한 편이다.

경상 인프라 구축 탄실

경상 지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 제일 지역'이다.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세다는 평가 그대로 이 지역의 불교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우선 부산·경남지역은 경상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불교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불교대학만도 부산불교대학을 포함해 52곳이나 되고, 어린이 포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 불교복지를 빼놓고는 지역복지를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지역 복지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대구·경북 불교도 부산·경남 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활발하다. 특히 대구는 교육 분야에서 특출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다. 두 권역 모두 문화와 사회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또 부산·경남의 경우는 불자들의 신심을 교육·포교 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문화분야 활동이 다소 약하다.

전라 불교인구 증가 포교기대

호남불교가 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생명나눔광주전남지역본부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활발하다.

그리고 근래 들어 많은 사찰과 수행단체들이 분주히 활동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활로를 열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종교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광주·전남지역이고, 그것이 불교인구라는 점에서 호남불교는 기회를 맞고 있다.

제주 지역민 일체감 모범적

불교와 지역민의 일체감으로만 따지자면 제주를 따라올 곳이 없다. 교육·신학 분야 활동이 두드러지며, 특히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대학을 세우는 등 자발적 신행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지만 복지는 이제 막 눈을 뜬 단계고, 문화나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서산 부석사 칠세 탐조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망원경으로 칠세를 관찰하고 있다. '칠세 탐조 템플스테이'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부석사

■ 무엇이 문제인가

체계·지속적 시스템 절실 주민 정서 고려 색깔찾기 필요 '내 절 아니면' 이기주의 그만

● 인프라가 부족하다

각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분야별 인프라 구축이다. 각 분야별 접근이 일회성이거나 유행에 편승하는 경향이 짙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니, 효과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가교육의 경우 스님의 능력에 의존할 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포교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단편적 행사에 그치면서 지속성을 갖지 못해 '체감적인 포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각 분야별로 기본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재양성도 시급하다.

● 확실한 아이템이 없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도 고유의 색깔을 갖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강원도 모 지역의 경우 4-5개 사찰들이 나무랄 데 없는 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뚜렷한 특징이 없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민정서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문화·관광지인 모 지역에서는 이런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사람들이 기존의 운영패턴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원주 상불린 주지 현각 스님은 "문화와 관광지원이 풍부한 불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찰·단체들 '마이웨이'

지역불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사찰 또는 단체 간 이기주의다. 어느 지역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질적 병폐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역인 부산에서 마저도 '내 절 아니면 관심없다'는 이기주의가 논란거리가 될 정도다.

게다가 이웃 사찰의 프로그램을 인기가 있으면, 그대로 모방까지 한다. 독자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쉽게 불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 나아가야 할 방향은

찾아가는 불교로 무한경쟁 돌파 아이템 개발 통한 경쟁력 강화 불자 정서 반영, 포교 전략 마련

● 앉아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다

지방화시대는 '적극성'을 요구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다리는 불교가 아닌 다가가는 불교가 절대로 필요하다.

성남 봉곡사의 경우 문화유구가 강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 '명사초청 강연회'를 열기 시작했으며, 안동 봉정사 역시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 인제 만해마을의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해 무료강좌'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프로그램 다양화해야

신학 및 포교 프로그램 다양화는 시대 흐름과 지역적 특성, 불자와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몇몇 사찰들의 노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정사다. 최근 들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는 시대흐름과 국민정서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 신홍사의 경우 법회 참석 불자들에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이 쿠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터'를 열고 있고, 안양 지장선원은 어린이·학생·청년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상좌제도를 두고 '멘토멘'식의 포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어린이·학생·청년·성인법회로 신학시스템을 구축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서산 부석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칠세탐조 템플스테이'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 미황사의 경우도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한문학과 과별체 등 다양한 행사를 개발해 문화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이제는 흥미는 물론이고 무엇이든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감동까지 주어야 한다"며 "불교를 '알게' 하는 것보다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다양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엽·한명우·천미희·배지선 기자

謹賀新年

瑞榮普洱

茶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보이 · 진보이음 · 칠판음 · 오물차 · 대홍포 · 화차 · 인삼이음

외 40여가지의 차

최성보이, 개명기념 인사이드 프로그램 2만 원 한정판매

보이차 전문점 '삼보이'가 최성보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www.ggu.ac.kr

스무살, 느낌표를 만나다

The Pride

Geumgang University

수능 2등급 이상 소수경예교육 신인생 전문 원격 장학금 지급 해외 자매대학 연수 및 교환학생 지원 해외대학 24시간 생활하는 글로벌 캠퍼스

2006학년도 금강대학교 정시 전형일정

■ 입학원서 교부 2005. 8. 16(화) - 12. 28(수)

■ 입학원서 접수 2005. 12. 24(토) - 12. 28(수) 09:00 - 17:00

- 인터넷 접수 12. 24(토) - 12. 28(수) 12:00까지

http://www.uway.com

http://www.applybank.com

■ 면접교사 "나" / 2006. 1. 13(금) 10:00 예정

■ 합격자 발표 "나" / 2006. 1. 17(화) 10:00 예정

■ 합격자 등록 "다" / 2006. 1. 27(금) 10:00 예정

2006. 2. 6(월) - 2. 7(화)

언론에서 노래하다 "금강대처럼만 하여라"

■ 금강대학교, 탈법지출 없는 유일한 대학(한겨레 2005-09-28)

■ 1인당 장학금 어느 대학이 가장 많을까? 대답은 금강대(동아일보 2005-09-16)

■ 2004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전체 92%, 고급 기숙사 무료제공(한겨레 2005-09-16)

■ 금강대 전입률 100%, 교육환경 우수대학(대전일보 2005-10-10)

■ 금강대 시간 강사로 전국 2위, 교원의 질 확보(조선일보 2005-10-09)

■ 수시 2학기 취업유리학과 인기, 금강대학교 3.14대 1 경쟁률(충청투데이 2005-09-26)